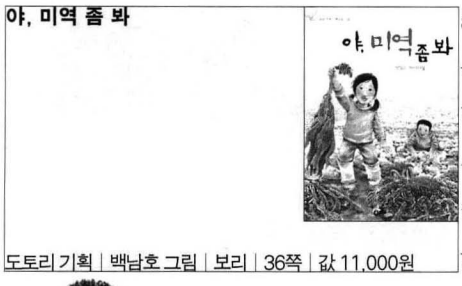
바다냄새, 흙냄새 도시 아이들도 맡게 해주세요



도토리 기획 | 백남호 그림 | 보리 | 36쪽 | 값 11,000원

5월입니다. 봄꽃놀이를 나온 어린이들은 벚꽃, 진달래, 개나리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가며 추억을 남기기 바쁩니다. 잔디밭 한켠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맛있게 점심을 먹는 가족들도 보이는군요. 모든 꽃이 만발한 계절 5월은 오랜만에 꽃향기와 풀내음을 도심의 아이들에게도 전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계절입니다. 여기 땅냄새, 바다냄새를 잊어버린 우리 아이들에게 바다냄새와 밭에서 나는 땅냄새를 고스란히 전해 주는 책들도 있습니다. 《야, 미역 좀 봐》와 《보리밭은 재미있다》는 우리에게 귀한 양식이 되기도 했던 바다나물과 보리를 섬세한 세밀화와 맛깔스런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도시락 반찬에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인 김을 먹어본 적 있지요? 《야, 미역 좀 봐》에는 김과 닮은 미역부터 파래, 톳 등 우리의 입맛을 돋우는 바다나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배경은 '몽돌개'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따뜻한 남쪽 바닷가지요. 이 지역에 유난히 동글동글한 몽돌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영등시' 때 가장 바쁩니다. 일 년 중에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이 날에는 '개발'이라 하여 바지락, 굴, 미역, 파래 등 먹을 것들을 캐러 가야 하거든요. 주인공 순이도 오빠와 함께 '개발'에 동참합니다. 돌마다 붙어있는 파래를 떼다 그 중 불그레한 것이 김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몽글몽글 구슬처럼 달린 모자반, 솔잎처럼 뻣뻣한 우뭇가사리도 발견하지요. 이 책은 이처럼 밥상에서나 보던 바다나물을 어떻게 캐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들의 생김새는 어떻게 다른지를 순이를 화자로 삼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나물 중에서도 미역의 생태와 미역을 따는 법, 말리는 법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서 바닷가 먹거리에 궁금증을 갖는 아이들에겐 좋은 자연정보가 됩니다. 양식으로 길러낸 바다나물들이 대량으로 나오는 요즘, 바닷가 사람들에게 소중한 먹거리, 생계수단이 되던 바다나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보리밭은 재미있다

이상권 글 | 김병하 그림 | 길벗어린이 | 26쪽 | 값 7,800원

《보리밭은 재미있다》를 펼치면 우리는 어느새 시원한 보리밭 풍경 속에 앉아 있게 됩니다. 주인공은 보리밭을 배경으로 다양한 추억을 쌓는 순박한 시골소년입니다. 보리밭은 소년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줍니다. 누나가 보리밭에서 보리를 캐는 날에는 밥상에 보릿국이 올라오는데 씹을 때마다 향긋한 맛이 나는 보리가 입맛을 돋웁니다. 그뿐인가요. 보리밭에 별꽃이 필 땐 보리밭은 꽃밭으로 변합니다. 하루종일 봐도 질리지 않는 풍경을 소년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한 소년과 친구들은 보리밭 고랑에 엎드려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을 때는 편안하게 소년을 맞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농촌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작가와 그림작가는 소년 이야기를 통해서 푸른 보리물결이 전해준 어릴 적 기억들을 회상했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우리 어린이들도 보리농사는 어떤 것이고, 보리밭이 어떤 추억거리를 남겨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스팔트와 컴퓨터 오락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겐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간직하고픈 '훈훈한 추억'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자연생태를 고스란히 간직한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문화적 혜택을 덜 받는 대신 삶의 자양분이 될 훈훈한 이야기들을 가슴에 안고 성장합니다. 들과 밭이 있고, 바다가 있고, 여기저기 생명체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자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집과 학원을 오가기 바쁜 내 아이의 5월, 꽃놀이도 시켜주시고 자연이 보이는 책도 선물해 주세요.

나약한 한샘이, 용사가 되었답니다

북치는 꼬마 용사

김진경 글 | 양혜원 그림
문학동네어린이 | 96쪽 | 값 7,800원

'판타지' 는 매우 흥미로운 장르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맘껏 펼쳐야 하는 어린 시절에 읽었던 판타지 동화는 오랜 동안 기억되지요. 판타지뿐이겠습니까. 재미로 따지면 '모험 이야기' 만한 게 없을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며 친구들을 만나고 사건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에서부터 우린 설렘을 느낍니다. 그러니 판타지의 세계를 모험할 땐 그 재미가 배가 되겠지요.

《북치는 꼬마 용사》는 국내 판타지 모험 동화에 목말라했던 아이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용사, 즉 한샘이는 맞벌이 부모 밑에서 자란 탓에 외로움을 잘 느끼고 말까지 못하게 된 가엾은 친구지요. 이 이야기는 그런 한샘이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궁금해하며 모험의 세계로 떠나고 특별한 사건들과 마주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한샘이는 모험담에서 감초역할을 하는 잠자리, 개미와 함께 바람구멍을 찾습니다.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바람구멍을 막아버린 먼지와 그을음을 거둬내기 위해서지요. 결국 한샘이는 수많은 장애물을 물리치고 바람구멍을 뚫은 후 자신의 아픔까지 치유합니다.

가뭄이 씻겨 나가는 순간 한샘이의 아픔도 사라졌다는 결말을 보면 개인과 그를 둘러싼 세계가 긴밀한 연관고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세계 안의 존재로서 돌아볼 기회를 가져다주는 이야기이지요. 특히 나약한 주인공이 당당한 용사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통해 아이들은 한샘이처럼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고학년 아이들이라면 한샘이가 길을 떠나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지 나머지 이야기를 제맘대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몸 불편한 진수네 아빠도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 아빠

고정욱 지음 | 신민재 그림 | 시공주니어 | 92쪽 | 값 7,000원

《우리 아빠》는 생활동화입니다. 특히 글을 쓴 고정욱 선생님의 체험이 잘 묻어나는 이야기라 더욱 정이 가는 작품이지요. 제목이기도 한 '우리 아빠' , 즉 진수의 아빠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아빠의 부족함을 느껴보지 못했던 진수는 어느날 부모님과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얘길 듣고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아빠는 이럴까?" 라는 질문을 내놓게 되는 것이지요. 아빠는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완주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진수에게 보여주려고 경기에 참가합니다. 물론 아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는 어린 진수는 아빠를 피해 오솔길로 들어가 버리지요. 이 책은 "마음 같아선 그 안에서 영영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진수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대신 아직은 어린 진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아주면서 진수의 아빠가 그 어떤 아빠보다도 훌륭한 아빠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생활 속 이야기야?" 라고 되묻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누군가에겐 지극히 낯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 중 일부인 장애인들에겐 일상이 돼버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기에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생활 속 이야기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익숙한 일상이 장애인들에겐 어떤 일상이 될지 한번쯤 생각하고 많은 걸 깨닫게 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김청연 기자